

# 유란시아서

<< [제 169 편](#) | [부분](#) | [내용](#) | [제 171 편](#) >>

## 제 170 편

### 하늘나라

170:0.1 (1858.1) 3월 11일, 토요일 오후에, **예수**는 **펠라**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였다. 이것은 그의 대중 봉사에서 주목할 만한 연설에 속하며, 하늘나라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벽한 논설을 담고 있다. 그는 “하늘나라”와 “**하나님**의 나라”라는 용어의 뜻과 중요성에 관하여, 사도와 제자들의 머리 속에 혼란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고, 이 두 가지를 자신 수여 사명에서 서로 바꿀 수 있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다. 하늘의 나라라는 바로 그 용어는 그것이 대표하는 의미를 땅의 나라 및 현세의 정부들과 전혀 상관없이 구분하기에 충분해야 했지만, 충분하지 않았다. 단 한 세대 안에 없애기에는 현세의 임금 개념이 **유대인** 머리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. 그러므로 오랫동안 육성해 온 이 왕국 개념을 **예수**는 처음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았다.

170:0.2 (1858.2) 이 안식일 오후에 주는 하늘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히 밝히려고 애썼다. 그 주제를 모든 관점에서 논의하고, 그 용어가 어떤 많은 다른 의미로 쓰였는가 밝히려고 애썼다.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전 경우에 **예수**가 하신 수많은 말씀을 덧붙이고, 바로 이날 저녁 토론 시간에 사도들에게만 주신 논평을 얼마큼 넣어서 그 연설을

확대하겠다. 우리는 또한 하늘나라 관념이 후일에 기독교회와 관계되는 대로,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어 갔는가 다루는 논평을 더러 하겠다.

## 1. 하늘나라 개념

170:1.1 (1858.3) **예수**의 설교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, **히브리** 성서 전체에 걸쳐서 하늘나라에 관하여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. 선지자들은 **하나님**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:

170:1.2 (1858.4) 1. 오늘의 현실로서, 그리고

170:1.3 (1858.5) 2. 앞날의 희망으로서 — **메시아**가 출현하고 나서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실현될 때. 이것이 **세례자 요한**이 가르쳤던 하늘나라 개념이었다.

170:1.4 (1858.6) 맨 처음부터 **예수**와 사도들은 이 두 개념을 다 가르쳤다. 머리 속에 간직해야 할 두 가지 다른 하늘나라 이념이 있었다.

170:1.5 (1858.7) 3. 후일에 **유대인**이 가진 개념, 곧 초자연적 기원을 가지고 기적으로 개시되는 세계적 초월 왕국의 개념.

170:1.6 (1858.8) 4. 세상이 끝날 때 선이 악에 승리함으로 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리는 **페르시아인**의 가르침.

170:1.7 (1858.9) **예수**가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**유대인**은 이 모든 하늘나라 이념을 **유대인**이 승리하는 시대를 개시하려고 **메시아**가 온다는 묵시적 개념으로 통합하고 혼동하였다. 이 시대는 땅에서, 새 세상에서, **하나님**이 최상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시대, 온 인류가 **야웨**를 예배할 시대였다. 이 하늘나라 개념을 이용하기로 하면서 **예수**는 **유대**

및 **페르시아** 종교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유산(遺産)을 이용하기로 작정했다.

170:1.8 (1859.1) 기독교 시대의 여러 세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해하고 오해한 바와 같이, 하늘나라는 네 가지 뚜렷이 다른 집단의 관념을 담고 있다:

170:1.9 (1859.2) 1. **유대인**의 개념.

170:1.10 (1859.3) 2. **페르시아인**의 개념.

170:1.11 (1859.4) 3. 몸소 체험한다는 **예수**의 개념 — “너희 안에 있는 하늘나라.”

170:1.12 (1859.5) 4. 기독교를 창시하고 전파한 자들이 세상에 강조하려고 애쓴, 복합되고 혼동된 개념들.

170:1.13 (1859.6) 다른 때와 달라지는 상황에서, **예수**는 대중을 가르칠 때 수많은 “하늘나라” 개념을 제시한 듯하지만, 언제나 사도들에게 하늘나라는 땅에 있는 동료들과 하늘에 계신 **아버지**와 가지는 관계에서 사람이 몸소 겪는 체험을 포함하는 것이라 가르쳤다. 하늘나라에 관하여, 그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“너희 안에 있는 나라”였다.

170:1.14 (1859.7) “하늘나라”라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있던 혼동은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:

170:1.15 (1859.8) 1. **예수**와 사도들이 “하늘나라” 개념을 다시 진술하는 여러 진보적 단계를 거침에 따라서 그 하늘나라 개념을 지켜보고서 생긴 혼동.

170:1.16 (1859.9) 2. **유대** 지방에서 이방의 땅으로 초대(初代) 기독교를 옮겨 심는 것과 불가피하게 연결된 혼동.

170:1.17 (1859.10) 3. 기독교가 그 핵심 관념인 **예수**의 인물에 관하여 조직된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에 처음부터 생긴 혼동. 하늘나라 복음은 갈수록 더 그에 관한 종교가 되었다.

## 2. 예수의 하늘나라 개념

170:2.1 (1859.11) 하늘나라는 **하나님이 아버지**라는 진실,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,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시작되고 거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는 분명히 밝혔다.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친 동물적 공포의 속박에서 사람을 해방하고, 동시에 영적으로 자유로운 새 삶이 부여하는 다음 재산으로, 인간의 생활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**예수**는 선언했다:

170:2.2 (1859.12) 1. 새로운 용기와 늘어난 영적 힘을 소유하는 것. 하늘나라 복음은 사람을 해방하고 사람이 영생(永生)을 감히 바라도록 격려할 것이다.

170:2.3 (1859.13) 2.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,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도, 새로운 확신과 참된 위로의 말씀을 담았다.

170:2.4 (1859.14) 3. 복음 자체가 도덕적 가치의 새 표준이요, 인간의 행위를 재는 새 윤리의 자였다. 복음은 그 결과로 생기는 새 체제의 인간 사회의 이상을 묘사했다.

170:2.5 (1859.15) 4. 그 복음은 물질적인 것에 비하여 영적인 것이 우수하다고 가르쳤다. 영적 실체들을 영화롭게 하고 초인간적 이상을 찬미했다.

170:2.6 (1860.1) 5. 이 새 복음은 영적 달성을 인생의 참된 목표로 높였다. 인간의 생명은 도덕적 가치와 신다운 위엄을 보이는 새 자질을 받았다.

170:2.7 (1860.2) 6. 영원한 실체들은 땅에서 올바르게 애쓴 결과라(그에 대한 보상이라)고 **예수**는 가르쳤다. 고귀한 운명을 깨닫는 결과로서, 땅에서 사람이 필사자로 머무르는 일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.

170:2.8 (1860.3) 7. 인간의 구원은 원대한 신의 목적의 계시임을 새 복음이 확인했으며, 신의 목적은 **하나님**의 구원받은 아들들이 끝없이 봉사하는 미래 운명에 성취되고 실현될 것이다.

170:2.9 (1860.4) 이 여러 가르침은 **예수**가 가르쳤던 확대된 하늘나라 이념을 담는다. 이 위대한 개념은 **세례자 요한**의 가르침, 초보이며 뒤범벅이 된 하늘나라 가르침에 거의 담겨 있지 않다.

170:2.10 (1860.5) 사도들은 하늘나라에 관하여 주가 발표하신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가 깨우칠 수 없었다. 신약(新約)에 기록된 바와 같이, **예수**의 가르침이 후일에 왜곡된 것은 복음서 기록자들의 개념이 **예수**가 그때 세상에서 잠시만 자리를 비우고, 권능과 영광을 입고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곧 돌아올 것이라는 관념 — 그가 육체를 입고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지냈던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생각 — 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. “새 시대”의 도래를 가리키는 아무 징조도 없이 여러 세기가 지났다는 것은 **예수**의 가르침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.

170:2.11 (1860.6) 이 설교에 담겨 있는 대단한 노력은 하늘나라 개념을 **하나님**의 뜻을 행하는 이상적 관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였다. 오랫동안 주는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쳤다: “**아버지**의 나라가 오소서, **아버지**의 뜻이 이루어지이다.” 이때 그는 같은 뜻이지만 더 실용적 용어,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, 하나님의 나라라는

용어를 그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유인하려고 진지하게 애썼다.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.

170:2.12 (1860.7) **예수**는 왕국 · 임금 · 백성 관념 대신에 하늘 가족, 하늘 **아버지**, 그리고 동료 인간을 위하여 기쁘게 자원하여 봉사하며 **아버지 하나님**을 숭고하고 총명하게 섬기는 데 몰두하는, **하나님**의 해방된 아들들, 이 세 가지 개념으로 갈아치우기를 바랐다.

170:2.13 (1860.8) 이때까지 사도들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을 습득했고, 다음과 같이 보았다:

170:2.14 (1860.9) 1. 그 당시에 참 신자들의 마음 속에 있던, 몸소 체험하는 문제, 그리고

170:2.15 (1860.10) 2. 종족이나 세계 현상의 문제. 하늘나라가 미래에 온다는 것, 기대할 어떤 것.

170:2.16 (1860.11) 사도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늘나라가 오는 것을, 마치 반죽 속에 있는 누룩과 같거나 겨자씨가 자라는 것 같은, 점진적 발전으로 보았다. 종족의 의미나 세계적 의미에서 하늘나라의 도래는 갑작스럽고 볼 만하리라고 믿었다. **예수**는 하늘나라가 상급의 영적 생활을 실천하는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라, 영을 체험하는 이 실체들은 신처럼 확실하고 영원히 장대한 새로운 상급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변화된다고, 지치지 않고 그들에게 일러주었다.

170:2.17 (1860.12) 이날 오후에 다음 두 단계를 묘사했으므로, 주는 하늘나라의 두 가지 성질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뚜렷이 가르쳤다:

170:2.18 (1860.13) “첫째. 이 세상에 있는 **하나님**의 나라. **하나님**의 뜻을 행하려는 최고의 소망. 사람을 사심없이 사랑하는 것, 이것은 개선(改善)된 윤리적 · 도덕적 행위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.

170:2.19 (1861.1) “둘째. 하늘에 있는 **하나님**의 나라, 필사 신자들의 목표. **하나님**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해지고, **하나님**의 뜻이 더욱 신답게 이루어지는 상태.”

170:2.20 (1861.2) **예수**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간다고 가르쳤다. 여러 강론에서 두 가지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수라고 가르쳤다:

170:2.21 (1861.3) 1. 믿음, 성실성. 어린아이처럼 와서, 아들 신분의 수여를 선물로 받는 것. 묻지 않고, **아버지**의 지혜로움을 완전히 믿고 진심으로 의지함으로 **아버지**의 뜻을 행하는 데 복종하는 것. 전혀 편견과 선입관(先入觀) 없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. 버릇이 나빠지지 않은 어린이처럼, 생각이 트여 있고 배울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.

170:2.22 (1861.4) 2. 진실을 간절히 찾기. 올바름을 목마르게 찾는 것. 생각의 변화, **하나님**과 같이 되고 **하나님**을 찾으려고 하는 동기를 얻는 것.

170:2.23 (1861.5) 죄는 결함이 있는 성품의 산물이 아니라,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의지에 지배된, 고의적 지능의 소산이라고 **예수**는 가르쳤다. 죄에 관하여 말하면, **하나님**은 용서하셨다, 우리의 동료로 용서하는 행위가 그러한 용서를 개인적으로 소용되게 만든다고 가르쳤다. 육체를 입은 네 형제를 용서할 때,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혼 속에서 너는 **하나님**이 바로 너의 잘못을 용서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만들어낸다.

170:2.24 (1861.6) 사도 **요한**이 **예수**의 일생과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비로소 기록할 무렵에, 초대 기독교인은 박해의 근원인 **하나님**의 나라 관념 때문에 너무 곤경을 겪어서, 대체로 그 용어(用語)의 사용을

포기하였다. **요한**은 “영생”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했다. **예수**는 영생을 또한 “생명의 나라”라고 이야기했다. 또한 “네 안에 있는 **하나님**의 나라”를 자주 언급했다. 한때 그러한 체험을 “**아버지 하나님**과 가지는 가족의 친교”라고 말했다. **예수**는 많은 용어를 하늘나라 대신에 쓰려고 애썼지만, 언제나 성공하지 못했다. 다른 것 가운데, 다음을 썼다: **하나님**의 가족, **아버지**의 뜻, **하나님**의 친구들, 신자들의 친교, 사람의 형제 정신, **아버지**의 양 떼, **하나님**의 자녀, 충실한 자들의 친교, **아버지**를 섬기는 것, **하나님**의 해방된 아들들.

170:2.25 (1861.7)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 관념의 사용을 피할 수 없었다.

50년도 더 지난 뒤에 **로마** 군대가 **예루살렘**을 파괴한 뒤까지 이 하늘나라 개념은 영생(永生) 종파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고, 한편 재빨리 커지고 틀이 잡혀가는 기독교회가 하늘나라의 사회적·제도적 모습을 이어받았다.

### 3. 하늘나라와 올바른의 관계

170:3.1 (1861.8) 어떤 서기관과 **바리새**인들이 세상이 보는 앞에서 아주 허세 부리며 과시한, 종처럼 따라 행하는 올바른을 뛰어넘을 그러한 올바른을 사도와 제자들이 신앙으로 얻어야 한다고 **예수**는 언제나 애써서 강조하였다.

170:3.2 (1861.9) 믿음, 어린애 같이 단순한 믿음이, 하늘나라 문의 열쇠라고 가르쳤지만, **예수**는 또한 문으로 들어간 뒤에, **하나님**의 건장한 아들의 어른 키까지 자라기 위하여, 모든 믿는 어린아이가 올라가야 하는, 점진적 올바른의 단계가 있다고 가르쳤다.

170:3.3 (1861.10) **하나님**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기법(技法)을 고려할 때 사람이 하늘나라의 올바름에 도달했는가가 드러난다. 믿음은 **하나님**의 가족에 들어가는 데 너희가 치르는 값이다. 그러나 용서(容恕)는 너희의 믿음을 입장료로 받는 **하나님**의 행위이다.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 **하나님**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한 실제 체험을 수반하며, 다음 네 단계로, 마음 속의 올바름을 얻는 하늘나라 단계들로 이루어진다:

170:3.4 (1862.1) 1. **하나님**의 용서는 사람이 동료로 용서하는 바로 그 한도까지, 실제로 이용할 수 있고 몸소 체험한다.

170:3.5 (1862.2) 2. 사람은 동료로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참으로 동료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.

170:3.6 (1862.3) 3. 이처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가장 높은 윤리이다.

170:3.7 (1862.4) 4. 그렇다면 도덕적 행위, 참된 올바름은 그러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.

170:3.8 (1862.5)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참된 종교, 마음 속의 종교는, 어김없이 더욱, 사회에 봉사하는 실용적 경로에서 명시(明示)되는 경향이 있음이 분명하다. **예수**는 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봉사에 종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살아 있는 종교를 가르쳤다. 그러나 **예수**는 종교를 대신하는 자리에 윤리를 두지 않았다. 종교는 원인이고 윤리는 결과라고 가르쳤다.

170:3.9 (1862.6) 어떤 행위가 올바른가는 동기(動機)에 따라서 재야 한다. 따라서 가장 높은 형태의 선은 의식되지 않는다. **예수**는 도덕률이나 윤리 그 자체에 결코 관여하지 않았다. **예수**는 아버지 **하나님**과 가지는 마음 속의 영적 친교에만 온통 관심을 가졌고, 그런 친교는 사람을

위하여 곁에서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로서, 아주 확실히 직접 나타난다. 하늘나라의 종교는 아무도 몸 안에 가둘 수 없는 몸소 겪는 진정한 체험이다, 신자 가족의 한 사람임을 의식(意識)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가족 행위 교훈을 실천하는 것으로, 곧 형제 정신을 높이고 확대하려는 노력으로, 형제와 자매에게 봉사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쳤다.

170:3.10 (1862.7) 하늘나라의 종교는 개인적 · 개별적 종교이다. 그 열매, 그 결과는 가족과 사회에 나타난다. **예수**는 공동체와 대조하여 어김없이 개인의 신성함을 높였다. 그러나 사람은 사심(私心) 없는 봉사로 인품을 기른다는 것, 사람은 동료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도덕적 성품을 펼친다는 것을 그는 또한 인식했다.

170:3.11 (1862.8) 하늘나라가 마음 속에 있다고 가르치고 개인을 높임으로 사회의 참된 올바름을 실현하는 새 섭리 시대를 열었으니까, **예수**는 옛 사회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. 세상이 이 새 체제의 사회를 거의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이 하늘나라 복음의 원칙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영적으로 우수한 이 하늘나라가 땅에 다가올 때, 단지 개량된 사회적 · 물질적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상되고 강화된 영적 가치의 영화로움에서 나타날 것이요, 그러한 가치는 다가오는 시대의 특징, 개선된 인간 관계와 진보하는 영적 성취의 특징을 나타낸다.

## 4.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

170:4.1 (1862.9) **예수**는 하늘나라를 결코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았다. 한때 하늘나라의 한 국면에 대하여 강론하고, 또 다른 때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**하나님**이 다스리는 그런 형제들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곤

했다. 이 안식일 오후에 설교하는 과정에서, **예수**는 적어도 하늘나라의 다섯 단계나 시대를 주목하였으니, 다음과 같다:

170:4.2 (1862.10) 1. 개별 신자가 **아버지 하나님**과 친교하는 영적 생활을 개인적으로 마음 속에서 겪는 체험.

170:4.3 (1863.1) 2.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확대되는 형제 단체, 곧 개별 신자의 마음 속에서 **하나님**의 영이 다스리는 결과로 도덕률이 향상되고 윤리가 자극되는 사회적 모습.

170:4.4 (1863.2) 3. 땅과 하늘에 널리 퍼져 있는,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초월 필사 형제 단체. 인간을 초월하는 자들의 **하나님**의 나라.

170:4.5 (1863.3) 4. **하나님**의 뜻이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기대, 개선된 영적 생활과 관련하여 새 사회 체제 — 사람의 다음 시대 — 의 여명을 향한 전진.

170:4.6 (1863.4) 5. 완전해진 하늘나라, 땅에서 미래의 영적 시대, 빛과 생명의 시대.

170:4.7 (1863.5) 그러므로 주가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쓸 때, 이 다섯 단계 가운데 어느 것을 언급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가르침을 검토해야 한다. 사람의 뜻을 차츰차츰 바꾸는 이 과정으로, 이렇게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, **미가엘**과 그 동료들은 마찬가지로, 사회적 및 기타 형태의 과정, 인간의 진화 과정 전체를 차츰차츰, 하지만 확실히 바꾸고 있다.

170:4.8 (1863.6) 주는 이 기회에 하늘나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대표하는 다음 다섯 항목을 강조했다:

170:4.9 (1863.7) 1. 개인이 첫째로 중요하다.

- 170:4.10 (1863.8) 2. 사람의 체험에서 결정 요소인 의지.
- 170:4.11 (1863.9) 3. **아버지 하나님**과 영적 친교를 가지는 것.
- 170:4.12 (1863.10) 4. 사람에게 사랑으로 봉사함으로 얻는 최고의 만족.
- 170:4.13 (1863.11) 5. 사람의 인격에서 영적인 것이 물질인 것을 초월한다.

170:4.14 (1863.12) 이 세상은 **예수**가 가르친 하늘나라 교리의 힘찬 관념과 신다운 이상을 한 번도 심각하게, 진지하게, 또는 정직하게 시험해본 적이 없다. 그러나 너희는 **유란시아**에서 하늘나라 관념이 겉보기에 느리게 진보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. 앞으로 나아가는 진화(進化)의 순서는 물질과 영, 이 두 세계에서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하게 주기적 변화를 거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. 육신화된 **아들**로서 **예수**가 수여된 것은 세상의 영적 생활에서 바로 그러한 이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. 하늘나라가 오는가 시대적 증표를 찾으라고 자신의 혼 속에서 하늘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치명적 잘못을 저지르지도 말라.

170:4.15 (1863.13) **예수**가 하늘나라의 한 단계를 미래로 넘겼고, 수많은 경우에 그러한 사건이 세계적 위기의 일부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언지시 비추기는 했어도,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가 아주 확실히, 몇 번이나 **유란시아**로 언젠가 돌아오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더라도, 결코 이 두 개념을 확실히 한데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. 그는 땅에서, 어느 미래에 하늘나라를 새로이 계시할 것을 약속했다. 또한 언젠가 이 세상으로 친히 돌아오리라고 약속했다. 그러나 이 두 사건이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았다.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종합해 보건대, 이 두 약속은 같은 사건을 언급할지도,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.

170:4.16 (1863.14) 사도와 제자들은 이 두 가르침을 함께 연결 지은 것이 아주 확실하다. 하늘나라가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, 앞날의 나라에 관한 주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그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, 그들은 이 두 약속이 동일 사건을 언급한다고 서둘러 단정하였다. 따라서 그들은 완벽하게,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**예수**가 즉시 다시 오기를 희망하면서 살았다. 그래서 뒤이은 신자 세대들은 영감을 주지만 헛된 바로 그 희망을 품고서 땅에서 계속 살았다.

## 5. 후일의 하늘나라 관념

170:5.1 (1864.1) 하늘나라에 대한 **예수**의 가르침을 요약했으므로, 우리는 하늘나라 관념에 붙게 된 어떤 후일의 관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, 하늘나라가 미래 시대에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가, 하늘나라를 미리 예측하도록 허락을 받았다.

170:5.2 (1864.2) 기독교가 전파되는 처음 몇 세기를 통해서 내내, 하늘나라 관념은 그때 재빨리 퍼지는 **그리스인**의 이상주의 개념, 자연의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 — 현세의 것은 영원한 것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자 — 라는 관념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.

170:5.3 (1864.3) 그러나 **유대인**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**예수**의 가르침을 옮겨심은 것을 표시한 큰 걸음은 하늘나라의 **메시아**가 교회에서 **구원자**가 되었을 때였는데, 교회는 **바울**과 그 후계자들의 활동으로부터 생겨나고 **예수**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종교적 · 사회적 조직이었으며, 그 가르침은 **필로**의 여러 개념과 **페르시아인**의 선악 교리로 보충되었다.

170:5.4 (1864.4) 하늘나라 복음의 가르침에 담긴 **예수**의 관념과 이상은 그 추종자들이 그의 선언을 점진적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거의 실현되지 못할 뻔했다. 주의 하늘나라 개념은 두 가지 큰 경향으로 인하여 눈에 띄게 수정되었다:

170:5.5 (1864.5) 1. **유대인** 신자들은 계속 **예수**를 메시아로 여겼다. 세계적이고 대체로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**예수**가 오래지 않아 실제로 돌아오리라고 믿었다.

170:5.6 (1864.6) 2. 이방(異邦)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일찍부터 **바울**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, 이것은 **예수**가 교회 신도들의 구원자라는<sup>[168]</sup> 일반적 관념으로 더욱 이끌었는데, **구원자**는 초기 개념, 곧 하늘나라의 순전한 영적 형제 정신을 새로이 제도적으로 이어받은 개념이었다.

170:5.7 (1864.7) 하늘나라의 사회적 결과로서 생긴 교회는 온전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기도 했을 것이다. 교회의 잘못은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, 오히려 교회가 **예수**의 하늘나라 개념을 거의 완벽하게 갈아치웠다는 것이다. **바울**이 만든 제도화된 교회는 **예수**가 선포했던 하늘나라를 사실상 대체하는 조직이었다.

170:5.8 (1864.8)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. 주가 가르친 바로 이 하늘나라는 신자의 가슴 속에서 존재하며, 땅에서 모든 다른 종교 · 종족 · 나라에게 — 아니 각 사람에게 — 선포되는 것 같이, 언젠가 이 기독교회에 선포될 것이다.

170:5.9 (1864.9) **예수**가 가르친 하늘나라, 개인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영적 이상과 사람이 **하나님**과 신성한 친교를 가진다는 개념은, **예수**의 인격이 **구원자**, **창조자**요, 사회 조직이 된 종교 공동체의 영적 우두머리라는 신비스러운 개념 속으로 차츰 가라앉게 되었다. 이

방법으로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교회는 개별로 영의 인도를 받는  
하늘나라 형제 단체의 대용품이 되었다.

170:5.10 (1864.10) 교회는 **예수**의 일생과 가르침에서 생겨난 불가피하고  
유익한 사회적 결과였다. 하늘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이 사회적 반응이,  
**예수**가 가르치고 실천했던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적 개념을 아주  
완전히 갈아치웠다는 사실에 비극이 있다.

170:5.11 (1865.1) **유대인**에게, 하늘나라는 **이스라엘** 족속의 공동체였고,  
이방인에게 하늘나라는 기독교회가 되었다. **예수**에게 하늘나라는  
**하나님**이 **아버지**라는 믿음을 고백하고, 이렇게 함으로 **하나님**의 뜻을  
행하는 데 마음을 다하여 헌신함을 선언하고, 따라서 사람의 영적 형제  
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개인들의 집합이었다.

170:5.12 (1865.2) 하늘나라 복음이 퍼지는 결과로서 어떤 사회적 결실이  
세상에 나타날 것을 주는 충분히 깨달았다. 그러나 모든 그러한  
바람직한 사회적 걸 모습이 개별 신자가 마음 속에서 겪는 이 개인적  
체험, 모든 그러한 신자에게 깃들고 그들을 움직이는 신다운 영과  
이렇게 순전히 영적으로 친교하고 교통함으로 의식하지 않고  
불가피하게 생기는 결과로서, 또는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나타나는  
것이 그의 의도였다.

170:5.13 (1865.3) **예수**는 한 사회 조직, 곧 교회가 참된 영적 국가의 진보에  
뒤따라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였고, 이것이 어째서 사도들이 **요한**의  
세례 의식 행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까닭이다. 그는  
진실을 사랑하는 사람, 올바른 곧 **하나님**을 간절히 바라고 목마르게  
찾는 사람은, 믿음으로 영적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고  
가르쳤다. 동시에 사도들은 그러한 신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세례 의식  
(儀式)으로 제자들의 사회 조직에 가입이 허락된다고 가르쳤다.

170:5.14 (1865.4) 영이 개별 신자를 지배하고 안내함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**예수**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부분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**예수**의 직계 추종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주의 하늘나라 이상 대신에, 눈에 보이는 사회 조직, 기독교회를 차츰 세움으로 **예수**의 가르침이 완전히 잊히지 않도록 구조하기 시작했다. 그리고 이러한 대체 계획을 성취하고 나서, 일관성을 유지하고 하늘나라의 사실에 관한 주의 가르침을 인정하려고,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미래에 생길 일로 분리해 놓았다. 교회의 지위가 안정되자마자 교회는 기독교 시대가 절정에 이를 때, **그리스도**가 다시 오실 때, 하늘나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.

170:5.15 (1865.5) 이 방법으로 하늘나라는 한 시대의 개념, 미래에 찾아온다는 관념이요, **최고자**의 성자(聖者)들이 마지막에 구출된다는 이상이 되었다. 초대 기독교인들(그리고 후일에 허다한 교인들)은 **예수**의 하늘나라 가르침에 담겨 있는 **아버지**와 아들 관념을 대체로 간과했으며, 한편 이를 교회의 잘 조직된 사회적 교제로 대체하였다. 이처럼 교회는 크게 보아서 사회적 형제 단체가 되었고, 이것은 **예수**의 영적 형제 단체라는 개념과 이상을 실질적으로 갈아치웠다.

170:5.16 (1865.6) **예수**의 이상적 개념은 대체로 실패했지만, 주의 개인적 생애와 가르침의 기초 위에 **바울**은 나서서 **유란시아**에서 일찍이 존재한 바, 대단히 진취적인 한 인간 사회를 세웠으며, 이것은 **그리스인**과 **페르시아인**의 영생 개념으로 보충되고, 영적인 것과 현세의 것을 대조하는 **필로**의 교리로 인하여 확대되었다.

170:5.17 (1865.7) **예수**의 개념은 세계의 진보된 종교들 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. **바울**의 기독교회는 **예수**가 만들려 의도했던 하늘나라 — 그리고 아주 확실히 하늘나라가 다다를 그 미래 — 의 사회화되고 인간화된 그림자이다. **바울**과 그 후계자들은 영생의 문제를 개인으로부터

교회로 일부 옮겨 버렸다. **그리스도**는 이처럼 **아버지**의 하늘나라 가족 안에서 개별 신자 하나하나에게 형이 되기보다,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. **바울**, 그리고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, **예수**가 자신과 개별 신자에 관하여 영적으로 암시한 모든 것을 신자의 집단인 교회에 적용했다.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**예수**의 개념, 개별 신자의 마음 속에 있는 신의 나라 개념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.

170:5.18 (1866.1) 그래서, 여러 세기 동안 기독교회는 큰 창피를 겪으며 수고했는데, 왜냐하면 교회가 하늘나라의 신비스러운 권능과 특권, 오직 **예수**와 영적 신자 형제들 사이에만 행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권능과 특권을 감히 주장했기 때문이다. 이처럼 교회에서 회원 자격을 얻는 것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친교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다. 하나는 영적인 것이요, 다른 하나는 주로 사회적이다.

170:5.19 (1866.2) 머지않아 “**하나님**의 나라가 가까웠도다”하고 외치는 다른 더 큰 **세례자 요한**이 나타날 예정이고 — 이것은 하늘나라가 신자의 마음 속에서 하늘 **아버지**의 뜻이 지배하고 초월하는 것이라 선포한 **예수**의 높은 영적 개념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— 그는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**그리스도**의 재림(再臨)을 어떤 방법으로도 언급하지 않고서, 이 모두를 이룰 것이다. **예수**의 실제 가르침이 부활되어야 하며, 그렇게 다시 적은 이야기는 **미가엘**이 땅에서 머무른 사실에 관하여 사회·철학적 신앙 체계를 만드는 데 분주했던 초기 추종자들의 실수를 돌이킬 것이다. 짧은 시일 안에 **예수**에 관한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**예수**의 하늘나라 복음 설교를 거의 대체해 버렸다. 이 방법으로 역사적 종교가 **예수**의 가르침을 바꿔치웠으며, **예수**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장 높은 도덕적 관념과 영적 이상을 미래에 대한 사람의 가장 숭고한 희망 — 영생 — 과 섞었다. 그것이 하늘나라 복음이었다.

170:5.20 (1866.3) **예수**의 복음이 아주 여러 모습을 가졌다는 바로 그 이유로, 몇 세기 안에 그의 가르침의 기록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종파와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다. 기독교 신자들의 이 딱한 분열은 주의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, 신과 하나가 된 일생, 비할 데 없는 그의 일생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생겨난다. 그러나 언젠가 **예수**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불신자 앞에서 이처럼 영적으로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. 언제나 우리의 지적 이해와 해석은 다양해도 좋고, 사회적 친교가 어느 정도 달라져도 좋지만, 영적 형제 정신의 부족(不足)은 용서할 수 없고 꾸짖어 마땅하다.

170:5.21 (1866.4) 오해하지 말라! **예수**의 가르침 속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언제까지나 열매 맺지 않은 채로 가만 두지 않을 영원한 성질이 있다. **예수**가 상상했던 하늘나라는 대체로 땅에서 실패했고, 한동안 겉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. 그러나 이 교회는 다만 좌절된 영적 하늘나라의 애벌레 단계요, 이 물질 시대를 거쳐서 하늘나라를 더 영적인 섭리 시대로 실어 나를 터이고, 그때 주의 가르침은 성장할 기회를 더 충만히 누릴지 모른다. 이처럼 이른바 기독교 교회는 고치가 되며, 그 속에서 **예수**의 개념인 하늘나라는 지금 잠을 잔다. 신다운 형제들의 하늘나라는 아직도 살아 있으며, 모습을 바꾸어 성장하는, 매력이 떨어지는 생물이 아름답게 펼쳐져 궁극에 나비가 솟아나는 것과 똑같이 확실하게, 이 오랜 침체에서 궁극에 확실히 솟아날 것이다.

---

[168]: 170:5.6 보상을 치르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.

---